

# 광주 서구, 전시성 행사 예산 추진 논란

## 1518명 연주단 구성 강사·악기비 수익원 편성 “추경편성 원칙 어긋나고 법적 근거도 없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서구가 전시성 주민동원 행사에 수익원의 예산을 꼼수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구 의원에 따르면 광주 서구는 내년 5·18 40주년 기념행사에 주민과 청소년 1518명으로 연주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구는 2억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추경에 5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구는 기념행사에 ‘입을 위한

행진곡’ 등 3곡의 연주를 위해 518명의 청소년 연주단 구성을 기획하고 청소년에게 소금, 소고 등의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 위한 강사비와 악기 구입비, 주민 1000명 등 원 등을 위해 이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추경안은 지난 20일 열린 소관 상임위인 서구의회 기획총무 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구의회 일각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는데다가 통상적으로 추경 예산에 행사성 예산을 편성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과도한 예산 출처를 묻자 해당 부서장은 ‘광주시 지원을 받아 경비를 조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해당 부서장에게 ‘광주시 예산이 구성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서구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5·18민주화운동 정신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류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관련 내용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구문화센터와 빛고을국악전수관, 지역 동사무소 프로그램, 개별 동호회 등 악기 연주가 가능한 주민들이 많아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면 예산을 줄이면서 합주행사가 가능한데도 서구는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5·18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대안을 고려한 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상정하면 되는데 수익원의 예산을 집행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전시성 행사에 수익원의 예산을 낭비하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예산 추경안이 23일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

## 수중작업 중 의식잃은 40대 선원 긴급 이송

해경이 해상에서 수중작업 중 의식을 잃은 선원을 긴급 이송해 목숨을 구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낮 12시7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8.3km 앞 해상에서 작업을 하던 22톤급 정치망 관리선 H호(승선원 4명) 선내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선장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원 A씨(41)의 의식과 맥박이 흔미한 것을 확인하고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긴급 이송에 들어갔다.

다행히 이송 중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화태도 월전향에 대기 중인 119구급대원에게 같은 날 오후 1시5분쯤 인계됐다. A씨는 여수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개 목줄 왜 안해”...반려견주 폭행 50대

광주서부경찰서는 20일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았으며 개 주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왜 개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느냐”며 시비가 돼 반려견 주인 B씨(43)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한 것일 뿐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펜션서 20~30대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충북 단양군의 한 펜션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22일 낮 12시39분쯤 단양군 단양읍의 한 펜션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주인 A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소방당국에 “투숙객 4명이 왔는데 문이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펜션 방 안에서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40kg짜리 질소 가스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신원 파악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인이라뻘길서 20대 자매 숨진채 발견

인천 경인이라뻘길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여성의 동생도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27·여)가 발견된 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동생 B씨(25·여)도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27분쯤 인천 계양구 장기동 경인이라뻘길 다남교 인근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도 언니 A씨 처럼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특별한 의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1일 오전 9시 43분쯤 같은 장소에서 숨진채 떠 내려가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상하 검은색 체육복을 착용한 상태였고, 체육복 주머니에는 신용카드 1장이 발견 됐다. A씨도 B씨처럼 특별한 의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곳 인근에서 자매의 가방도 발견했다. 가방에는 두 자매의 신분증과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이들 자매 거주지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쪽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두 자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광주·전남 읍무운전 공무원 568명 징계 이재정 의원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읍무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5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읍무운전 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읍무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4211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광주는 2014년 35명, 2015년 18명, 2016년 20명, 2017년 18명, 2018년 22명 등 총 113명이 읍무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전남은 읍무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수가 2014년 118명, 2015년 88명, 2016년 81명, 2017년 98명, 2018년 70명 등 총 455명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읍무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수는 경기 632명과 경북 466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이 의원은 “읍무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 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풍 복상에 피항한선박들 제17호 태풍 '타파(TAPAH)'가 북상 중인 22일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 선박이 피항해 있다.

## 대광역고·서진여고 통학로 부지 반환소송서 업체 승소

### 등학교 차질 우려

광주 남구에 위치한 대광역고와 서진여고의 통학로 부지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학생들의 등학교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흥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종합개발에게 흥복학원이 대광역고의 연외벽돌 담장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계하고, 대광역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통학

로 사용된 토지를 인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토지를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 2017년 3월1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49만5675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종합개발은 흥복학원 산하에 있는 대광역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광주 남구 주월동 옛 서진여고 부지를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흥복학원 설립자인 이흥하씨의 소유였던 서진병원 부지는 이씨가 사학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등의 일로 세금이 체납되면서 경매로 넘어갔다.

A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중 일부를 대광역고 연외벽돌 담장이 침범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통신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대광역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해당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흥복학원 측은 통학로 부지가 도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흥복학원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